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6월 9일)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연주암·선본사 직영해제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돼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가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가 직영사찰인 연주암과 선본사의 특별분담사찰 전환을 결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사찰의 분담금을 10% 감액함에 따라 조정된 중앙종무기관의 올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 23~24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감사를 비롯해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성과는 연주암과 선본사의 특별분담사찰 전환이다. '연주암 및 선본사의 직영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상정한 중앙종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선본사는 1994년 분규에 의한 사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영사찰로 전환됐다. 그 이후 선본사는 종단에 많은 기여를 했고, 지역포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당 교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해당 교구는 선본사가 특별분담사찰로 전환돼도 기존 분담금을 그대로 납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주암에 대해서도 "2016년 조계종 중앙종회가 각 교구별로 직영사찰을 1곳씩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당시 총무원장스님이 우선적으로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구중심제와 분권화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무원이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해당교구에 역할을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주암을 다시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사찰을 돕기 위해 분담금 10% 감면을 골자로 편성한 것으로 295억 8341만원에서 25억 9630여만원 감액된 269억 8702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쟁점 법안으로 평가됐던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은 각각 부결·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교역직 종무원을 겸직하도록 완화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31표·반대 24표·무효 1표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 7명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비구니 명사 추대 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공식적 종법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결국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내용을 보완해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철회했다.

중앙종회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은퇴출가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문화재구역 입장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종단 주요 인사안들도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원로의원에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은 향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출된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대종사 21명, 명사 2명이 법계를 품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심호계위원·법규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감사와 승가학원 이사의 복수 추천 동의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중앙종회는 최근 발생한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중앙종회의원)의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추진키로 하고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성 스님이 발의한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에 대해서 의석수 배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관련 내용을 차기 회의서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2면

종무기관 2020년 추가경정 가결
원로의원 도후·지명 스님 추천
겸직금지 완화 종헌 개정안 부결
명사 추대 법계법 개정안 철회해
묘적사 수행환경침해조사위 구성



조계종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국서 돌아온 '송광사 치성광여래도'에 대한 환수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환수된 '치성광여래도'에 합장의 예를 하고 있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해외 유출 송광사 '치성광여래도' 환지본처

조계종, 7월23일 환수고불식
한국전쟁 무렵 영국에 유출
송광사로 이운해 봉안 예정
종단·재단·송광사 협력 덕



영국서 환수된 '송광사 치성광여래도'. 19세기 후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유행한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해외 유출돼 영국 등지를 떠돌던 조계총림 송광사의 '치성광여래도'가 환지본처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국에서 돌아온 '송광사 치성광여래도'에 대한 환수고불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오심)와 송광사(주지 자공),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소장자와 협의를 통해 6월 28일 '치성광여래도' 환수에 성공했으며, 이날 환수고불식에 이어 원래 자리인 송광사로 이운해 봉안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시련과 수난을 겪으면서 민족의 자부심과 정신문화가 깃든 소중한 문화재가 상품화되고 왜곡되어 왔다"며 "종단이 문화재 환수에 큰 원력을 세운 것은 국민의 자부심과 정신문화가 깃든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결실을 맺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송광사 칠성도가 환수된 것은 성보 보존과 전승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원력과 우리 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맞닿아 이루어진 부처님의 가피"라며 "소중한 송광사 칠성도가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힘쓴 많은 분들에 감사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성보들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번 환수에 대해 "종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최응천)의 긴밀한 협조와 봉안처인 송광사의 적극적인 노력 등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치성광여래도' 1점을 발견하고 종단에 이를 알렸다. 당시 불화는 화기(畵記) 앞부분에 기재된 제작 연도와 봉안 사찰명이 훼손된 상황이었지만, 종단 측이 불화의 화풍과 남아있는 화기를 분석해 송광사 산내암자인 청진암에 봉안되었던 불화였음을 확인했다.

종단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송광사 측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성보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국외로의 유출 시기와 이유는 특정할 수 없으나 한국전쟁 등 국내의 혼란기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력해 운문사 '칠성도', 봉은사 '시왕도', 범어사 '신중도'의 환수를 통해 구축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외 유출 성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지속적인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보다 효과적인 환수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원행 스님의 뜻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문화재환수재단과 성보소장기관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포괄적 기금을 조성해 문화재 환수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성보환수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종단 차원의 문화재 환수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